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Needs Assessment for Urban Agricultural Program

장보경** · 최윤지*** · 황정임****

Bo Gyung Jang · Yoon Ji Choi · Jeong Im Hw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needs assessment for urban agricultural program.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Citizens at urban cities said that educational program of 'shortage of farming technology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wanted to be given 'farming technology' of urban agriculture education area more than other education areas.

The citizens asked for urban agricultural program with both theories and practice education than existing urban agricultural program that relied upon basic theory education. And, they wanted urban agricultural program that was based on 'farming technology' to consist of practice education and theory education at the ratio of 80 and 20 and to be professional and differentiated. The citizens preferred 3 to 6 months of education period the most, and more than 95 percent of them wanted to join the program when it is developed.

주요어(key words): 도시농업(Urban Agriculture),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Urban Agricultural Program)

* 본 연구는 2010년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e-mail: janghoewon@korea.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교신저자. e-mail: veritas96@korea.kr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e-mail: jihwang@korea.kr

1.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로의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최근에는 도시민의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각종 식품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먹을거리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또한 환경문제, 생태계 파괴, 녹지공간의 부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내 녹지율을 높이는 조치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거나, 일부 도시민들은 주말농장을 분양받아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방법으로 도시농업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9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 도농교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단순한 농업생산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경제, 생태적 측면에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도시 근교의 농지 또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도시민에게 1년 단위로 임대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소규모로 농사지을 수 있는 주말농장이 있다. 최근에는 도심텃밭, 생태텃밭, 상자텃밭, 학교텃밭, 베란다텃밭, 옥상농원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시농업동호회, 아파트공동체, 유기농생협 등이 중심이 되어 도시에서 생태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 도시농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도시농업이 공론화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언론, 시민, 단체 등의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나영은, 2010).

그러나 도시농업의 수요가 폭발적인만큼 지자체 및 시민단체에서 이루

어지는 도시농업 교육은 기초적인 이론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체험 교육을 포함하는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은 그리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농업을 통해서 일반 도시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교육과 더불어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농업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상황에 적합한 도시농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농업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도시농업 경영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장동현 & 소순열, 2005), 도시농업 가치평가 연구(장동현, 소순열, & 유찬주, 2006), 도시농업의 국내외 사례나 제도적 기반에 관한 연구(박용범, 조병의, & 김수옥, 2008; 강기남, 이종근, 김기황, & 이만형, 2007; 장동현, 2009; 나영은, 2010; 장준호, 김은옥, & 조지은, 2010), 도시농업 영농실태(장동현, 2007), 주말농장 선호분석(김태균, 조재환, 박문호, & 최태길, 2009) 및 텃밭 이용실태(김용수, 김수봉, 이영민, & 권용일, 1999; 강기남, 이종근, 김기황, & 이만형, 2007)에 관한 연구, 도시농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협동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권광식, & 최덕천, 2005) 등이 있는데, 이처럼 도시농업 실태 분석이나 가치평가 분석,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가 대부분이며,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민들이 농업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선행연구

도시농업은 통상 주말농장, 학교체험학습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으로 이해되며 규모, 목적, 공간, 활동내용, 토지사용, 활동 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개념 설정이 가능하다(박용범, 조병의, & 김수옥, 2008). 장동현 & 소순열(2005)은 도시농업을 계획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는 농업으로 규정했으며, 장동현(2009)은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도시와 농업의 관계 속에서 공공적이며 생태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농업이다. 그리고 농업을 통한 도시문제의 완화 내지 해결을 위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는 농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공간적 영역은 도시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의 형태를 포괄하고 농업형태의 주체에 따라서 농업인은 자가생산과 상업적 생산형태를, 도시민은 농업을 활용한 취미 및 생활농업의 형태를 띠는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대민 & 최영애(2010)는 도시민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으로 규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업활동을 포함한다고 했다. 유형에 있어서는 옥상정원, 실내공간농업, 학교정원, 공동체 정원, 원예치료, 도시민농장, 동물 키우기 등으로 구분했다. 이창우(2005)는 도시농업을 도시 행정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활동으로 규정하고 텃밭 경작, 공한지 무단점유농업, 상업적, 취미농업으로 구분하였다. 이렇듯 도시농업은 다양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영국은 18세기 ‘인클로저 운동’에 따라 도시로 내몰린 농민들의 빈곤문제 해결책으로 19세기 말부터 얼로트먼트(allotment)가 시작되었고, 쿠바는 미국의 경제 봉쇄로 1990년대 식량위기에 처하자 범국가적으로 도시농업을 장려하게 되었으며, 독일은 도시와 주변의 공유지를 도시민이

채원으로 가꾸도록 하여 녹지 확보와 건강,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소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농업여건이 크게 악화되자 농지보전 등을 위해 시민농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농업은 이미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

도시농업은 영국의 얼로트먼트(allotment),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일본의 시민농원, 미국의 버티컬팜(vertical farm), 쿠바의 유기농 도시농업, 우리나라의 주말 체험 농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영국의 얼로트먼트는 작물재배를 목적으로 개인에 임대해 주는 토지를 말하는데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얼로트먼트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10로드(253m²)를 기본으로 하며, 임차방식은 지방정부나 토지 주인으로부터 임대받은 시민농원조합은 시민에게 이용권을 부여한다. 영국은 1908년 얼로트먼트법 제정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얼로트먼트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1950년에 공포된 얼로트먼트법에 따르면 공공소유의 유휴지와 수용·구입·차입한 농지를 채소 및 과수재배를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다(나영은, 2010).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은 ‘작은 정원’을 뜻하며 도시민들의 휴양과 건강 증진의 공간으로 조성돼 도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주말농장이다. 면적 4만 7,000헥타르에 140만 구획에 이르는 독일의 소정원은 19세기 초반 의사 슈레버가 환자들의 치유를 돕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최근 들어 소정원의 환경보호 효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자신의 집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는 독일인의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특히 베를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20만 개의 소정원 구획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수가 8만 개에 달하고 있다. 독일연방의 건축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무적으로 필요한 면적의 클라인가르텐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녹색 생태학적 관점에서 공업지구, 상업지구, 주거지역을 연계하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클라인가르텐은 식량생산보다는 독일 도시인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심의 생태환경을 지켜주는 동시에 관광농업의 효과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장준호, 김은옥, & 조지은, 2010).

일본의 도시농업은 도시에 있어서 농업생산 활동과 여가형의 시민농원 형태이다. 일본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업이 도시 내에 둘러싸인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시민 참가에 의한 여가형 시민농원 도입은 1981년 시가지 내의 농지에 대한 분구원 형태의 녹지사업을 도시공원법에 개정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일본은 특정 농지의 임대에 관한 농지법 등 특례에 관한 법률(1989)을 제정하여 농업인 이외의 사람들이 지방공공단체 또는 농협조합을 통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소규모의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 5월에는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레크리에이션 용도의 농지에 휴식시설을 포함하여 도시민이 시민농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도시농업 형태의 하나인 생활녹지로서 기능과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992년 생산녹지법이 개정되어 녹지기능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게 되었다(장동현, 2006).

미국의 도시농업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백악관에 만든 승리정원(victory garden), 어린이들의 비만퇴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백악관 안에 조성된 키친가든(kitchen garden), 주민들이 농사를 통하여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있다.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고층건물의 각 층에서 농사를 짓는 버티컬팜(vertical farm)도 있다(나영은, 2010).

쿠바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에 따른 구소련의 원조 삭감, 1993년 허리케인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1990년대 초 미국의 경제 봉쇄 등으로 식량위기에 처하였다. 이에 따라 쿠바 정부는 1990년대부터 도시에 서의 식량 생산을 장려하기 시작하였고 공한지를 경작희망 단체에 나누어 주는 등 어려워진 식량문제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쿠바에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여러 조직체가 있다. 국립도시농업그룹은 과학학회, 정부협회, 도시농업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도시농업의 조직, 개발, 통제의 책임이 있다. 시민협의회는 도시농업의 대표 또는 농업의 대리자로 구성되며 수의학, 재배, 방제 등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한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 조직으로 구성된 농업연구그룹이 도시농업 지원을 맡고 있다. 첫째는 자기 정원이나 인접한 유휴지를 농사에 사용하는 사람이나 연금을 받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구성된 농업클럽, 둘째는 양, 산양, 돼지 등 축산 관련자들이 모인 목축클럽, 셋째는 도시에 녹색을 늘리는 계획인 '나의 녹색 프로그램'이다. 아바나에서는 1996년의 시 조례에 따라 유기농업만이 허용된다. 아바나 전체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80% 이상은 도시텃밭에서 생산된다. 쿠바는 경제위기 이후 농업교육·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서 농업 및 환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기술지원을 위한 토양연구소, 양돈연구소, 식물방역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박용범, 조병의, & 김수옥, 2008).

우리나라 도시농업으로는 도시 근교의 농지 또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도시민에게 1년 단위로 임대하여 주말이나 휴일에 소규모로 농사지을 수 있는 주말농장이 있다. 최근에 도심텃밭, 생태텃밭, 상자텃밭, 학교텃밭, 베란다텃밭, 옥상농원, 수직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법·제도는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을 뿐이다. 2007년에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 조례, 2009년에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조례, 2010년 수원시 도시 생태농업 육성 조례가 각각 제정되었으며, 2010년 상반기부터 도시농업이 공론화되고 도시농업에 대한 언론, 시민, 단체 등의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나영은, 2010). 이처럼 국내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논의는 90년대부터 있어 왔지만, 도시농업이 공론화가 되고 관심과 수요가 점점 증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또한 미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렇듯 그동안의 도시농업 관련 연구들은 도시농업 실태 분석이나 가치평가 분석,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요구조사를 통해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요구(needs)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격차를 말하는데 요구분석이란 그러한 격차를 결정하고 그것의 본질과 원인을 점검하며 미래의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를 찾는 체계적인 행위를 말한다. 즉 문제의 발생 시점이 언제든 간에 불확실한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활동이 바로 요구분석이다. 요구분석(needs analysis)은 요구사정(needs assessment), 차이분석(gap analysis), 선두분석(front-end analysis), 격차분석(discrepancy analysis)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분석은 교육과정 또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이전에 요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요구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분석도구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존자료 분석, 면담, 관찰, 그룹회의, 설문조사, 결정적 사태분석 등이 있다(오인경 & 최정임, 2008). 본 논문에서는 현존자료 분석, 설문조사 등을 이

용해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장동현 & 소순열(2005)은 연구에서 도시농업의 생산적 측면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의 형태변화를 다루었다. 그들은 도시 내에서 자연을 지킨다는 점과 도시민들에게 신선한 채소 등 풍부한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점에서 유용하고, 이로 인해 도시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보존론의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장동현, 소순열, & 유찬주(2006)는 그들의 연구에서 도시농업을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전되어야 할 대상으로 접근하였다. 강기남, 이종근, 김기황, & 이만형(2007)은 연구에서 텃밭조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방안까지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녹지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추진방안의 하나로 도시농업을 선정하고, 정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사이에 토의하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존에 발표된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정책 방안을 제시했다(나영은, 2010). 또한 장동현(2009)은 연구에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의 인식 조사를 통해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으며, 장준호, 김은옥, & 조지은(2010)은 도시농업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도시농업관련 프로그램의 홍보와 지속적인 추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교류시스템의 확립, 도시민 참가형 농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장동현(2007)은 연구에서 도시지역 농업은 경과적이며 잔존적인 의미보다는 생태 지향적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생태적인 측면에서 농업의 영역확대, 농업과 도시와의 관계 정립 등을 통해 도시 속에서 농업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형태로 보전되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형태로 농업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태균, 조재환, 박문호, & 최태길(2009)은 체재형 주말농장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을 실시해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간이 비 제도권 공원녹지임에 주목하여 일반 주택 거주자들에 비해 자연과의 접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김용수, 김수봉, 이영민, & 권용일(1999)은 그들의 연구에서 대구시내의 아파트 거주민의 텃밭 이용실태 및 의식분석을 통하여 도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비 제도권 공원녹지의 개발방향을 마련하고자 했다.

권광식 & 최덕천(2005)은 논문에서 도시농업을 클러스터형태로 운영하여 도시어메니티를 증진할 수 있는 기본 모형과 그 효과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도시농업의 추진을 위한 협동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자 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도시민들이 농업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도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조사는 도시농업 관련 문헌과 전문가 면담,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

영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고찰하였고, 설문조사는 2010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도시농업 교육을 받고 있는 도시민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조사내용은 도시농업 활동 관련 및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관련문항,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소득, 결혼, 주소 등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226명 가운데 남자가 173명(76.5%), 여자가 53명(23.5%)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122명(54.0%), 40대가 63명(27.9%), 60대 이상이 30명(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보다 대학재학·졸업이 138명(61.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자영업 63명(27.9%), 전문직 43명(19.3%), 주부 39명(17.3%), 사무행정직이 24명(10.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N=226)	남	173	76.5	직업 (N=226)	자영업	63	27.9
	여	53	23.5		사무행정직	24	10.6
결혼여부 (N=226)	기혼	215	95.1		생산기술직	8	3.5
	미혼	11	4.9		판매서비스직	7	3.1
연령 (N=226)	20대	3	1.3		전문직	43	19.0
	30대	8	3.5		주부	39	17.3
	40대	63	27.9		학생	2	0.9
	50대	122	54.0		기타	40	17.7
	60대 이상	30	13.3		평균수입 (N=226)	150만원 미만	10
교육수준 (N=226)	초졸 이하	1	0.4			150~200만원	22
	중졸	6	2.7	201~300만원		48	21.2
	고졸	55	24.3	301~400만원		54	23.9
	대재학·졸업	138	61.1	401~500만원		46	20.4
	대학원 이상	26	11.5	501만원 이상		46	20.4

4.2. 도시농업에 관한 요구

도시농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14명(50.4%)으로 경험이 없는 응답자(49.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중 121명(53.5%)은 농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영농기술 교육 분야로는 다른 작물보다 '특용작물'이 78명(34.5%), '과수'가 74명(32.7%)으로 높게 나타났다.

희망하는 도시농업 교육 분야로는 '영농기술'이 143명(56.5%)으로 '농작물 가공·유통'이 45명(17.8%), '농업경영능력'이 22명(8.7%), '농업정보수집 활용능력'이 21명(8.3%), '영농계획수립'이 17명(6.7%) 등의 다른 기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영농기술교육의 필요 정도는 '많이

필요하다'가 66.8%, '필요하다'가 29.7%로 응답자 대다수가 영농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도시농업 관련한 영농기술을 배우는 곳(도시농업 영농기술 교육자)은 농업기술센터가 79명(35.0%)으로 가장 높았으며 책자·인터넷이 75명(33.2%), 주변의 주말농장 이용자가 42명(18.6%)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농업교육 실습장소로는 관련기관주말농장이 91명(40.2%)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표 2〉 도시농업에 관한 요구

변수		빈도(%)	변수		빈도(%)
도시농업 경험 (N=226)	예	114(50.4)	농사경험 (N=226)	예	121(53.5)
	아니오	112(49.6)		아니오	105(46.5)
희망하는 도시농업 교육분야 (N=253) (다중응답)	영농기술	143(56.5)	희망하는 영농기술 교육분야 (N=226)	벼	5(2.3)
	농업경영능력	22(8.7)		채소	40(17.7)
	농작물 가공/유통	45(17.8)		과수	74(32.7)
	영농계획수립	17(6.7)		화훼	3(1.3)
	농업정보수집 활용능력	21(8.3)		특용작물	78(34.5)
	기타	5(2.0)		두류/서류/잡곡	7(3.1)
영농기술 교육필요 정도 (N=226)	필요하지 않다	1(0.4)		한우/낙농	13(5.8)
	보통이다	7(3.1)		양계	4(1.8)
	필요하다	67(29.7)		양잠/양어/양봉	1(0.4)
	많이 필요하다	151(66.8)		기타	1(0.4)
도시농업 영농기술 교육자 (N=226)	주변주말농장이용자	42(18.6)	도시농업 교육 실습장소 (N=226)	관련기관주말농장	91(40.2)
	주말농장관리자	10(4.4)		자가토지	37(16.4)
	농업기술센터	79(35.0)		자가임대토지	14(6.2)
	책자/인터넷	75(33.2)		선도농가	47(20.8)
	기타	20(8.8)		귀농농가	37(16.4)

4.3.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희망하는 도시농업 교육기간으로는 '3~6개월'이 64명(28.3%), '3개월'이 54명(23.9%), '1년'이 39명(17.2%)순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도시농업 교육 형태로는 실습+이론(80:20, 150명(66.4%))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현재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으로는 '영농기술교육부족'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수료 후 예상되는 효과로는 '귀농준비에 도움'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 요구사항으로는 '실습교육을 위주로'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 참여 여부는 '참여하겠다'가 49.6%, '반드시 참여하겠다'가 45.6%로 응답자 대다수가 교육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표 3〉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변수		빈도(%)	변수		빈도(%)
희망하는 도시농업 교육기간 (N=226)	1주일	4(1.8)	희망하는 도시농업 교육형태 (N=226)	실습위주로	32(14.2)
	2주일	4(1.8)		이론위주로	4(1.8)
	1개월	19(8.4)		실습+이론(80:20)	150(66.4)
	2개월	23(10.2)		실습+이론(20:80)	20(8.8)
	3개월	54(23.9)		선도농가견학	17(7.5)
	3~6개월	64(28.3)		기타	3(1.3)
	1년	39(17.2)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 요구사항 (N=147) (서술형)	실습교육 위주로
	1년 이상	14(6.2)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교육		22(15.0)
	기타	5(2.2)	전문적인(심화)과정		9(6.1)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점 (N=226)	영농기술교육 부족	58(25.6)	교육 참여기회 부족	3(2.0)	
	교육기간이 짧다	35(15.5)	실습장소 부족	4(2.7)	
	교육기간이 길다	5(2.2)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점 (N=226)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18(8.0)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 요구사항 (N=147) (서술형)	작목선택 정보제공	3(2.0)
	교육내용이 도움 안 된다	19(8.4)		전문적인 강사로	11(7.5)
	교육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56(24.8)		교육기간 짧다(1년 정도)	4(2.7)
	기타	35(15.5)		지역별 교육기관 부족	5(3.4)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 수료후 예상되는 효과 (N=226)	작물재배기술 습득	38(16.8)	프로그램 개발 시 참여여부 (N=226)	기타	26(17.8)
	전반적인 도시농업 이해	52(23.0)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1(0.4)
	도시농업 정책이해	9(4.0)		참여하지 않겠다	1(0.4)
	기능준비에 도움	112(49.6)		보통이다	9(4.0)
	삶의 정서적 변화에 도움	14(6.2)		참여하겠다	112(49.6)
	기타	1(0.4)		반드시 참여하겠다	103(45.6)

5. 결론

본 연구는 도시민들이 농업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민들은 현재 받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으로 '영농기술교육부족'이라고 지적하고, 희망하는 도시농업 교육 분야로 '영농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높게 요구했다.

또한 도시민들은 주로 기초적인 이론교육에 치우쳐 진행되어 오던 기존에 도시농업 프로그램보다는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을 요구하면서 '영농기술'을 위주로 하고 실습과 이론이 80:20으로 구성되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될 수 있는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희망하는 도시농업 교육기간으로는 3~6개월을 선호했으며,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95% 이상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초조사,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제시하면 현재 각 지자체 및 시민단체에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이론교육 위주의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병충해 예방, 토양, 미생물, 작물의 영양장애, 도시농업 생산물의 식품안전성 문제, 작물의 토종 채종법, 해넘이작물의 재배 등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다양한 영농기술들을 포함하는 중급, 고급단계의 전문적인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구성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제시해 보면 교육인원은 1기수당 25명 내외가 교육효과 측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기간은 실습교육을 고려해서 '3~6개월' 정도로 하고,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 내용은 '영농기술'을 위주로 하되 이론 교육과 개인 실습 받을 제공하여 실시하는 실습 교육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진행은 전문 강사풀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특히 실습 교육 시 담임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도록 '수확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방법'에 대한 실습 프로그램'의 병행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도시농업 활동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된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자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연구대상에 있어서 일부 교육생 집단에 제한을 둔 점과 분석방법에 있어서 심층적이지 못한 한계점이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명확한 연구대상과 세부적이고 다양한 분석방

범으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주제와 변수들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권광식, & 최덕천. (2005). 도시농업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네트워크. *한국협동조합연구*, 23(1), 59-77.
- 김용수, 김수봉, 이영민, & 권용일. (1999). 아파트 거주민의 텃밭 이용실태 및 의식 분석. *한국정원학회지*, 17(4), 139-148.
- 장기남, 이종근, 김기황, & 이만형. (2007).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26(1), 167-176.
- 김성수, 정지웅, 임형백, 고운미, 김정태, 이성, et al. (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53-65.
- 김태균, 조재환, 박문호, & 최태길. (2009). 체재형 주말농장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대구광역시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정책연구*, 36(3), 795-809.
- 나영은. (2010). 에너지 자립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정책 방안. *한국환경농학회지*, 29(3), 304-308.
- 황정임, 최윤지, 이상영, 조록환, 박덕병, 장보경 et al. (2010). 도시농업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수원: 농촌진흥청.
- 박용범, 조병의, & 김수옥. (2008). 생활농업으로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도시생활농업 제도화 및 성과관리 방안—. 수원: 농촌진흥청
- 오대민, & 최영애. (2010). 자연과의 만남으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도시농업. 서울: 학지사.
- 오인정, & 최정임. (2008).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법론. 서울: 학지사.
- 이창우. (2005). 생태도시와 도시농업. 전국귀농운동본부 강의자료. 4. 15.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장동현. (2009).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산업경제연구*, 22(2), 979-994.
- 장동현. (2006). 생태지향형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동현. (2007). 도시농업의 영농실태와 존속 가능성 모색. *지역사회연구*, 15(4), 79-102.
- 장동현, & 소순열. (2005). 도시농업의 경영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시 농업을 사례로—. *전북대학교 농대논문집*, 36, 86-102.

- 장동현, 소순열, & 유찬주. (2006). 도시농업의 인식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전주시 도시민을 사례로—. *지역사회연구*, 14(3), 91-105.
- 장준호, 김은옥, & 조지은. (2010). 도시농업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안양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논문집*, 35(2), 61-70.

전국귀농운동본부(<http://www.refarm.org/>)

부산귀농학교(<http://www.busanrefarm.org/>)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http://cafe.naver.com/dosinongup/>)


인천시농업기술센터(<http://agro.incheon.go.kr/>)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http://cafe.daum.net/cityagric/>)

수원시농업기술센터(<http://nongup.suwon.ne.kr/>)

부산시농업기술센터(<http://nongup.busan.go.kr/>)

경기도 광주시농업기술센터(<http://www.ggj.or.kr/>)



논문투고일: 2011. 8. 9

1차수정일: 2011. 9. 12

게재확정일: 2011. 9. 24

